

정례브리핑

2022.2.4.(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2월 6일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날입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2월 6일에 회의를 소집한다고 결정을 하고 이번 회의에서 내각의 2021년도 사업정형 및 2022년도 과업에 대한 문제, 작년도 결산 및 올해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법령을 제정하고 예산 심의 및 승인, 조약의 비준 및 폐기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현재까지 총 14차례 개최되었고, 대체로 하루 또는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8차례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19년 4월과 2021년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은 회의 개최 하루이틀 전에 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의 금수산공전 참배 등 사전동향을 보도매체들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하였지만 이번 6차 회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동향이 보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역할과 그간의 개최 관례 등을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 그리고 최근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관련 사항을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일정과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은 특별한 외부 행사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사전에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이 없어서 브리핑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